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2.11.28.(월) 조간	배포	2022.11.25.(금)		
담당 부서	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창운	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류영호	(02-3145-8001)
	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종오	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김충진	(02-3145-7447)
	자산운용감독국 펀드심사2팀	책임자	국 장	최강석	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	이원흠	(02-3145-6730)
	금융상품심사분석국 심사분석총괄팀	책임자	국 장	윤영준	(02-3145-8220)
		담당자	부국장	정관성	(02-3145-8230)

「FSS, the F.A.S.T.」 프로젝트 #05

- Fairness, Accountability, Support, Transparency -

**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(신속·투명성 강화)로
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및 건전한 경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**

주요 내용

-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인허가 신청인들의 애로와 니즈(Needs)에 크게 공감하고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-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·관리하는 **START**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
-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**Quick-Review** 제도 도입 등 심사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.
- 외국·일반사모펀드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**펀드심사시스템**을 개편하겠습니다.
- 새로운 금융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심사 연관 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하고 약관심사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.

“FSS, the F.A.S.T.” 프로젝트 #05

- Fairness, Accountability, Support, Transparency -

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(신속·투명성 강화)로
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및 건전한 경쟁을 적극 지원

추진 방향

인허가 통합관리를 위한 START포털 구축

-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편의성 제고
- 접수번호·예상면담일 조회 가능, SMS 안내
- 신청인 맞춤형 정보사항 제공
(유권해석, 심사사례 등)



신기술사업 심사 컨설팅 및 현장리뷰로 신속성 제고

- 사전컨설팅 확대·강화 등 고객 편의 및 신속성 제고
- 심사담당자 현장리뷰(Quick-Review) 신설로 심사기간 단축
- 진행과정 주기적인 안내로 예측가능성 강화



외국펀드·일반사모펀드 심사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

- 외국펀드 등록시스템 구축으로 심사기간 등 단축
- 신청서 핵심사항 위주 입력, 심사항목 및 진행상황 공개
- 일반사모펀드 접수·보고시스템 전면개편
- 심사 필요사항 위주 입력 및 입력 오류 최소화 등



새로운 금융상품의 신속한 출시 지원

-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 신설로 처리방향 신속결정
- 심사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안내
- 숙련도 높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상품 심사기간 단축



1. 추진 배경

- 금감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「사전협의*」 단계를 운영

* 인허가 신청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법령상 심사요건·절차 등을 상담·안내

-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장기화 되고, 신청인 입장에서 대기시간, 면담일정 안내 등이 미흡

2. 개선 방안

- (START포털 시스템) 신청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, 신속·투명한 사전협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(START 포털)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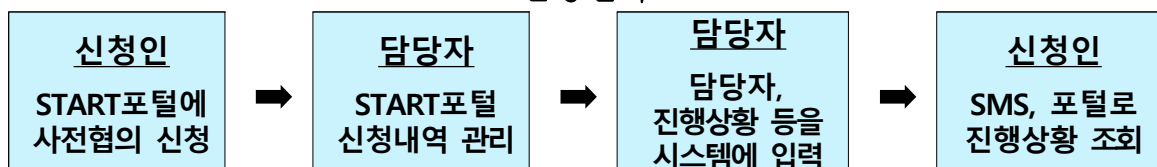
- 신청인은 START 포털시스템*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, SMS 등을 통해 담당자, 진행상황(대기순서, 면담일정) 등을 안내

* 기존 유선 등으로 이루어지던 사전협의 신청·접수, 진행상황 조회가 온라인에서 가능 해짐에 따라 신청인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담당자도 신속·투명한 절차 진행 가능

사전협의 온라인 시스템(START 포털) 개요

- ◆ 신청대상 : 인허가·등록* 업무 중 사전협의 진행 업무 신청회사
 - * 인허가 : 은행, 보험, 금융투자(투자매매·중개업, 신탁업 등) 등
 - 등록 : 전자금융업, 신기술금융업, 투자자문·일임업 등
- ◆ 신청방법 : 신청인이 금감원 홈페이지內 「START포털」에 신청인 정보 (성명, 연락처, 법인정보 등), 신청업무(예: 투자자문업 등록) 등 입력
- ◆ 통보방법 : SMS로 사전협의 담당자, 접수번호, 면담일정 등 안내 (신청인이 접수번호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)

<신청절차>



- (인허가매뉴얼 개편) 인허가 관련 자주 접수되는 질의·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니즈(Needs)에 맞게 매뉴얼 개편*

* 신청인의 인허가 준비 부담 감소를 위해 기존 유권해석, 심사사례 등을 충분히 제공

3. 추진 일정

- '23년 상반기중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, 인허가 매뉴얼*은 '23년 1분기 중으로 개편 예정

* 신청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매뉴얼은 우선적으로 금년중 개편완료

2

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등록 심사방식 개선을 통한 신속성 제고

1. 추진 배경

- 일반지주회사의 CVC(신기사·창투사)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수요*가 증가하는 추세

* 신기사 등록 추이 : ('19) 10→('20) 7→('21) 14→('22.1~10말) 20(CVC 4개사 포함)

- 금감원은 늘어난 신기사 등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, CVC-일반 신기사 2-track 체계를 운영하고, 사전면담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,
 - 일부에서 등록 대기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인 등록 심사를 위한 처리방식 등 개선 추진

2. 개선 방안

① 사전면담 신속 실시 및 내실 있는 컨설팅 제공

-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
- 등록 필요 서류,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,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고 충분히 컨설팅

② 등록 절차 및 신기사 운영 관련 FAQ 제공

- 실제 등록 과정 및 신기사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을 FAQ로 정리하여 컨설팅 시 제공하고,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 (인허가 매뉴얼 반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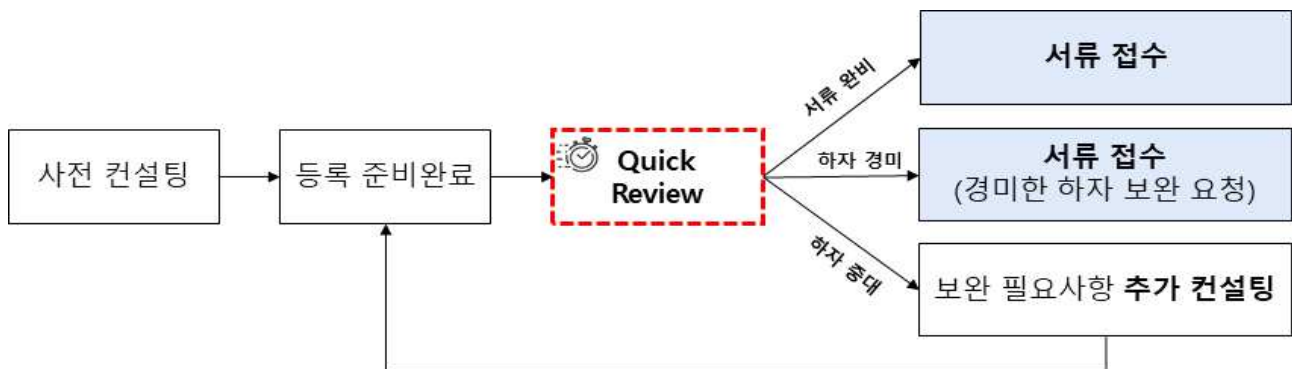
③ 등록 심사 단계에서 Quick-Review 제도 신설

-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(Quick-Review) 하고,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 및 등록 추진*

* 등록 서류에 일부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접수(현장에서 보완 요청) 및 등록 추진

- 다만, 등록 서류에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 실시

Quick-Review 도입 후 신기사 등록 심사 Process



④ 등록 진행상황 피드백을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

- 신청인에게 진행상황*을 주기적으로 안내(인허가 매뉴얼 반영)

* 서류 접수, 사실조회, 등록 심사, 등록 완료

- 현장 리뷰 시 등록 예상 시점을 안내하여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

3. 추진 일정

□ 사전면담 관련 사항, Quick-Review, 피드백 강화 : 즉시 시행

□ 신기사 등록 및 운영 관련 FAQ 등 인허가 매뉴얼 개정 : 금년 中

1. 추진 배경

- 외국·일반사모 펀드의 등록·보고 심사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,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업계 요구 확대
 - 심사업무 과정에 남아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심사프로세스의 근본적 전환 필요

2. 개선 방안

- **(외국펀드 심사) 「외국펀드 등록·관리시스템」(가칭)**을 개발하여 등록신청·심사·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**주과정 전산화*** 추진

*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관련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는 비효율적 방식

- 심사항목, 심사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,
-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

- **(일반사모펀드 심사)**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「일반사모펀드 보고·접수시스템」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

- 보고내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기재*토록 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, 금감원 심사의 효과성 제고

* 현재는 보고 내용에 관계없이 사모운용사가 심사 관련 자료를 일괄 업로드하는 방식

- 또한, 간담회 등 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사모운용사 보고단계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강화

3. 추진 일정

- '23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·개편하고,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'23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 적용 예정

1. 추진 배경

-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법률검토로 심사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나
 -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절차 투명성 제고 등 감독행정 변화에 대한 업계 수요는 강화

2. 개선 방안

- 협의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검토 등 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'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'를 신설하여 검토부서 및 처리방향* 등 결정(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)

* 소관부서 자체검토 또는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안내 등

- 상품신고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*하여 구체적으로 안내

* 추가서류 요청, 소관부서 검토(자체), 소관부서 검토(법률자문) 등

- 아울러,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 및 심사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

3. 추진 일정

- '23.1분기 중 시행 예정